

순천 해룡면 4만여명 유권자 ‘캐스팅보트’

4·15총선 선거구 점검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는 급조된 선거획정안에 의해 순천 해룡면이 광양곡성구례에 편입됐다. 이 때문에 기존 광양곡성구례 후보들과 해룡면민들의 당혹감은 이만저만 아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새로운 선거구에서 투표하는 순천 해룡면민의 표심이 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광양이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보다는 무소속 강세지역이라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될 지도 관심사다.

달라진 선거법으로 인해 이번 총선부터 18세 이상 투표가 가능하다. 2월 기준 18세 이상 광양 12만5천712명, 곡성 2만5천974명, 구례 2만3천4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선거구에 투표하는 순천 해룡면은

18세 이상 4만1천5명을 차지하고 있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본선 주자로 나서는 서동용 후보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임차보호법 개정,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 광양보건대 정상화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이들 현안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여의도 입성시 적극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순천 해룡면이 광양곡성구례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곡성구례 시민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에 따른 벼락치기 획정은 21대 국회에서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선거구 획정 바로

잡기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 ▲기후위기 대응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아이돌봄·어린이 교통안전 등을 내세웠다.

서 후보와 양자 대결이 예상되는 정인화 의원은 무소속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

정 후보는 현안으로 순천 ‘선거구 쪼개기’를 바로 잡고 재발 방지를 제도화, 광양 경제의 원동력 철강과 항만 경제 중흥, 곡성·구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4년 전 국민의당 돌풍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정 의원은 ▲여·순사건 관련법 제정 ▲임대아파트 세입자 주거안정 관련법 개정 ▲지역 발전과 서민의 살림살이 개선에 앞장서는 민생을 돌보는 정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역 무소속 정인화 vs 민주 서동용 ‘양강구도’
인구 최다 광양서 민주당 고전 재현 여부 관심

정인화
(무소속·62)



경력	▲국회의원 ▲전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주요 공약	▲여순사건 관련법 제정 ▲임대아파트 세입자 주거안정 관련법 개정 ▲지역 발전과 서민의 살림살이 개선에 앞장서는 민생을 돌보는 정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55)



경력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인권특보
주요 공약	▲선거구 획정 바로잡기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 ▲기후위기대응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아이돌봄·어린이 교통안전

이경자
(정의당·49)



경력	▲정의당 심상정대표 사회복지정책특보 ▲광양만녹색연합 운영위원
주요 공약	▲초과이익공유제 ▲공정거래법 위함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식량자금을 법제화 ▲농어민 기본소득 국가책임제

정 후보는 순천 해룡면의 민심을 잡고자 순천광양곡성구례간 무소속 노관규 예비후보와 해룡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승리와 더불어 순천시 2개 선거 분구를 이루하겠다고 지지 호소했다.

정의당에서는 이경자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최근 대기업의 갑질과 불평

등을 없애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3대 상생협력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19년 한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천634만원으로, 연봉 1억이 넘는 노동자도 50만 명이나 되지만, 전체 인구의 3.2%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6.8%의 국민도 행복한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주요 공약은 ▲초과이익공유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이다. 농어업 관련해서는 식량자금을 법제화 및 제2농지 개혁, 농어민 기본소득 국가 책임제 등을 내세우며 밀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임재만기자

金지사 “해외입국자 격리 행정력 집중”

시·군 자체 시설 활용 등 지시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단의 대응책을 세우라”고 특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전남도 내 유럽 입국자 53명 중 32명은 음성이고 21명은 검사 중이어서 앞으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등 관리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각 시·군은 자체 마련한 격리시설을 활용하고 전남도도 필요시 자가격리 시설을 지원하면서 격리에 필요한 준칙을 마련해 시·군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교회 주일 예배 중단을 권고하고 PC방·노래방은 발열 여부 체크 등 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며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담당 직원제 실시 등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목포 7·8번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 43명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감염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며 “도와 목포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역학조사를 신속히 마쳐 지역사회 감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재정기자

심상정 “위성정당 대비 못해 깊은 책임감…혼란 면목 없다”

광주서 기자회견…“정의당 정치개혁의 길 지켜달라” 호소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4·15 총선을 겨냥한 비례대표용 정당들의 잇단 등장과 관련 “이런 혼란과 염려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위상정당 출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총선을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은 미래통합당”이라며 “대

한민국 개혁이라는 촛불의 명령을 운운으로 사보타주해왔다”고 비판했다. 범여권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참여한 민주당을 향해 “과거의 낡은 셈법으로 회귀했다”며 “이는 오히려 수구세력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용 정당 불참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이는 민주당과 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의당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은 부당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멈춘 바로 그 자리

에서 있겠다”며 “정치의 고비마다 민주주의의 길을 안내해 주신 광주시민, 전라도민이 정의당의 정치개혁의 길을 지켜주시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에 이어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도 했다. 심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정의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비례대표용 정당을 표방하는 신당들로 범여권 지지도가 흡수되면서 정의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진보·개혁진영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다이지자



추경안 의정연설 이윤섭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 코로나19와 관련 시민안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약안에 대해 의정연설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李시장, 코로나19 성금 1천200만원 기부

이윤섭 광주시장이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1천2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 시장은 26일 오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4개월분 총 급여의 30%인 1천2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월급의 30%를 4개월 동안 기부할 계획이었으나 적은 금액이나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4개월분을 미리 기부기로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시민들께서 보여 주신 십시일반의 힘과 지혜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고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몰셀름 없는 지역 내 방역안전망을 갖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촘촘한 경제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서민경제를 동시에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이 기부한 금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예정이다. /김종민기자

화순 5차

한국아델리움 (39층 예정)

센텀브릿지

화순 중심의 최초 스카이크뮤니티 아파트
당신의 하늘과 만나세요

화순 최초, 퍼스트 프리미엄

Top Life 3

Top Life 01

최상층 스카이크뮤니티

주민 공동시설 특화아파트

Top Life 02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공원같은 아파트

Top Life 03

화순 최초 초고층 아파트

(39층 예정)

코로나때문에 예약 상담제로
운영되오니 전화주세요!

1차 조합원 잔여세대 모집중

총괄본부

1668-0949

사명 : (가칭) 화순삼천리센텀지역주택조합
주주명 : 한국건설(주)